

성탄절의 참된 의미

성탄절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며,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고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날이다.

하나님 근본의 빛으로 신속한 변화를 체험한 2011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친히 이끄시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2011년 네 가지 교회 기도제목을 통해 주신 축복을 되새겨 본다.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

공로패를 수상한 만민중앙교회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의 인터뷰, 감사패를 수상한 대전만민교회의 말씀암송 비결 등을 살펴본다.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시공 초월한 기도로 잉태 축복을 받은 파키스탄 아시프 목사와 무안단물을 통해 당뇨병이 치유된 인도네시아 리따 목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13호 2011년 12월 25일 (성탄·송년 특집호)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닮을게요”



“믿음, 소망, 사랑~” 지난 12월 16일 밤 9시 50분, 성도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성탄트리가가 점등됐다.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어 듣고 보는 소식마다 탄식소리만 나온다. 하지만 만민 성도들은 영의 물결 타고 온 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닮은 영의 마음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성탄 트리 장식은 어느 해보다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다. 본당 내부는 눈 결정체, 비즈, 미러 아크릴 등 다양한 소품과 각종 엘이디 조명을 활용해 새 예루살렘 목자 성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연회장을 표현했다. 본당 입구는 큰 별과 대형 오로라 빛 네온으로, 2성전 입구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온과 눈 내린 트리로 디자인했다. 그 외 대형 아치와 성탄 트리 사이에 수많은 엘이디와 각종 장식, 3천여 개의 전구 장식 등으로 성전 외부를 꾸몄다.

